

명인·명창 등용문 '전주대사습놀이' 개최

제49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제41회 학생전국대회, 19일~6월 5일 국립무형유산원 등 전주 일원서 진행

국악 분야 최고 등용문인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가 대한민국 소리의 고장 전주에서 펼쳐진다. 전주시와 (사)전주대사습놀이 보존회가 주최하고, 전주대사습놀이조직위원회와 (주)문화방송, 전주 MBC가 주관하는 제49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와 제41회 학생전국대회가 오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18일 동안 국립무형유산원과 전주대사습놀이 전주 일원에서 개최된다.



전주대사습놀이 포스터

질 예정으로, 판소리 명창부와 무용 명인부 등 주요부문의 치열한 본선 경연은 MBC를 통해 전국에 송출된다. 판소리 명창부 장원에게는 명예의 대 통령상과 함께 우리나라 국악계를 이 끌어갈 명창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

로 국악계 최고 상금인 7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특히 올해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서는 심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블라인드 심사 시스템 △판소리 명창부 지정고수 제도가 최초로 도입된다. 민간 국악 경연대회 최초의 블라인드 심사는 전국대회 기악 일반부문 예선에 적용되며,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심사위원과 참가자 사이에 내립막을 설치해 참가자의 인적 사항을 보지 않은 채 연주만으로 박사·공력·성음 3가지 항목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판소리 명창부 본선에 적용되는 지정고수 제도는 명창부 예선을 통해 3명의 본선 진출자가 정해지면 조직위원회에서 지정한 3명의 고수 중에서 제비뽑기를 통해 파트너를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소리꾼과 고수가 함께하는 판소리의 특성상 소리꾼의 고수가 누군지에 따라 실력 외의 불필요한 요인으로 심사위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보다 공정한 심사를 통해 장원을 가리기 위함이다.

한편 대사습놀이는 조선시대에 판소리와 백일장, 무예 대회 등을 포함한 종합 대사로 출발했으며, 임진왜란 등으로 중단됐다가 지난 1975년 다시 시작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간 전주대사습놀이에서는 오정숙 명창을 비롯해 조상현, 이일주, 조봉달, 은희진, 전인삼, 윤진철, 왕기석, 허은선 등 내로라하는 명창들을 배출하며 대한민국 국악 분야 최고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전국대회의 참가 신청은 12일 오후 6시까지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누리집(www.jds.or.kr) 등을 통해 진행되며, 판소리명창부 심사에 동참할 청중평가단 모집은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jonjudsch@daum.net)으로 신청하면 된다.

황권주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전주대사습놀이에 전국의 실력 있는 국악인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면서 "전국의 국악 애호가들께서는 최고의 국악인들이 펼치는 국악 축제를 즐겁게 감상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지역 노동자들의 사기진작과 격려, 화합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리 신장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제133주년 노동절 기념대회가 11일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제133주년 노동절 기념대회 열려

전북지역 노동자 사기진작·격려·화합 통해 노동자 지체

전북지역 노동자들의 사기진작과 격려, 화합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익 신장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제133주년 노동절 기념대회가 11일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인태 전주부시장과 김운덕·김성주 국회의원, 조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빈소개와 모범조합원 표창,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시는 산업현장에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노사 화합에 기여한 모범조합원 1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김인태 전주부시장은 "우리 지역 경제발전의 든든한 원동력인 노동자와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생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하자"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노동자 복지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노사민정협의회와 사무국, 플랫폼노동자센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옥기 기자

'제1회 J-디지털 취·창업 페스티벌' 개최

24일 전북대서 IT/SW 분야 청년 창업·취직 돕는 일자리 축제 진행

취업분야 전문가와 IT기업 대표, 선배 취업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IT/SW 분야의 청년 창업과 취직을 돕는 디지털 일자리 축제가 열린다.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북대 SW중심대학사업단은 최근 챗 GPT 등으로 확산된 산업 분야의 디지털 혁신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4일 오전 10시 전북대학교 진수당과 구정문 일대에서 '제1회 J-디지털 취·창업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지역 IT/SW기업 등이 대거 참여하는 이번 페스티벌은 대학생·구직자, 예비창업자들에게는 IT/SW 분야의 취직과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수요에 맞는 양질의 인재를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디지털혁신과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행사는 크게 △개막식 △공공기관과 IT/SW기업의 채용·설명관 부스 △취업 전문가와 유명 IT기업 대표 등을 연사로 하는 명사 특강과 토크콘서트 △선배 취업

자들이 실전 취업팁을 공유하는 현장 자 초청부스 △취창업 플플마켓(플리마켓+프리마켓)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채용·설명관'은 35개의 공공기관/지역IT·SW기업이 참여하며, 공공기관의 IT/SW분야 채용설명을 진행하는 '채용설명관'과 더불어 실제 현장 면접을 거쳐 IT/SW기업 채용까지 이뤄지는 '면접채용관'이 마련된다.

'명사 특강'은 취업과 창업 분야로 나뉘어 운영되며, 각각 지방대 출신으로 대기업 15곳에 동시 합격한 황인멘토(한국야쿠르트 프레젠테이션 교육팀 근무)의 '저스펙 취업의 신이 알려주는 취업합격 노하우'와 남은호 마이크로딕체임 대표이사의 '세상을 바꾼다! 디지털 창업 준비와 키포인트 전략'을 주제로 한 강연이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이날 전북대 구정문 일원의 거리에선 전북대 취업지원과·총학생회 주관으로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에 재직 중인 선배들이 직무별 취업 성공전략을 공유하는 초청부스 등이 펼쳐진다.



이외에도 이번 일자리축제에서는 △IT/SW기업 재직자 토크콘서트 △취업과 창업 분야 컨설팅 부스 △면접준비를 돕는 이력서 사진촬영과 이미지 메이킹, 면접 의상 대여관 △인생캐릭터, 취업진로 타로관, 퍼스널컬러 진단 등 다양한 이벤트 부스가 운영된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J-디지털교육관리시스템(jedu.jca.or.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63-281-4185)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청렴문화 정착 위한 공직자 청렴 라이브 교육 실시

전주시는 소통·공감으로 함께하는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11일 시청강당에서 간부공무원, 신규임용자, 승진자 등 소속 공무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 라이브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청렴라이브는 공연, 영상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으로 공직자들이 청렴을 더 쉽고 친근하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콘서트형식의 교육 프로그램이다.

시는 공직자의 청렴의식 제고와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특히 4급이상 고위공직자의 인식과 의지가 조직의 청렴도 향상에 매우 중요한 만큼 교육에 필수적으로 참석해 청렴했다.

청렴 라이브 교육은 △출세를 꿈꾸는 용공 공무원별 주부 자리의 이야기를 그려낸 청렴 판소리 '별주부전'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감질관련) 청렴 특강 △청렴공모전 우수작 영상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청렴의 의미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공직자 법무행정 역량강화 교육 실시

전주시는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총 5회에 걸쳐 간부공무원 등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3년 법무행정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현대해상 8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첫날 교육에는 실무 담당 공무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행정기본법과 행정쟁송, 소송실무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또, 평소 업무 중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질의 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시 인권법무과장과 송무팀장이 각각 행정기본법과 소송 실무 강사로 나서 판례와 사례 중심으로 소송 수행 시 주의할 점 등 실무형 교육을 실시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이날 교육은 행정기본법의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올해 9월 24일 시행)라고 불리는 △제재처분의 제

척기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분의 재심사 제도 등 중요 사항 위주로 진행돼 인·허가 및 행정처분 업무 담당자들이 일선 업무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와 해결 방법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시는 이날 교육에 이어 12일에는 실무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2회 교육을 진행하고, 오는 24일과 25일 이들 동안 시 간부공무원 17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현수 전주시 인권법무과장은 "법무행정 교육은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법적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의 역량을 높이고, 전주시의 행정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